



박인비



수잔 페테르센

‘골프여제’ 박인비 vs ‘2인자’ 페테르센

오늘 굿윌 트로피 세계 1·2위 맞대결

박인비·유소연·평산산 등 아시아 대표 페테르센·노세라·버크 등 유럽 대표로 이벤트 경기지만 자존심 걸린 한판승부

여자골프 세계랭킹 1,2위 박인비(26·KB금융그룹)와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해 장외 대결을 벌인다.

박인비와 페테르센은 4일 중국 하이난의 미션힐스 하이커우 골프장에서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을 이틀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대표 8명씩 출전하는 굿윌 트로피에 출전한다. 이벤트 경기지만 세계랭킹 1,2위의 맞대결이 예상돼 관심이 높다.

9월 경기를 펼쳐지는 이 대회에는 아시아 팀 대표로 박인비를 비롯해 세계랭킹 5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세계랭킹 6위 평산산(중국), 린초치(대만) 등이 나서고, 유럽 팀 대표로는 페테르센과 유럽여자프로골프 상금왕을 지낸 글레디스 노세라(프랑스), 한나 버크(잉글랜드) 등이 출전한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박인비와 페테르센의 자존심 대결이다. 이벤트 경기 뒤 이어지는 본 대회 결과에 따라 세계랭킹 1,2위 자리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박인비는 미 LPGA 투어 개막 2경기(바

하마클래식, 호주여자오픈)를 건너뛰고 뒤늦은 시즌을 시작하면서 페테르센에 여자골프 1인자의 자리를 위협받았다. 그러나 태국에서 열린 혼다 LPGA 타이랜드 준우승, 2일 끝난 HSBC 위민스 챔피언십 공동 4위를 발판삼아 페테르센의 추격에서 벗어 나고 있다. 반면, 빠른 속도로 박인비를 추격해온 페테르센은 최근 성적이 뒷걸음지며 세계랭킹 추격에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시즌 첫 출전한 호주여자오픈에서 공동 28위에 그쳤고, 박인비와 함께 출전한 2경기에서는 10위(혼다 타이랜드), 공동 4위(HSBC 위민스 챔피언십)에 머물러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는 박인비가 안정적인 1위를 굳혀가고 있다. 10.31점을 얻은 박인비는 9.46점을 획득한 페테르센과의 격차를 0.85점 차로 벌렸다. 지난 주(2월24일 기준) 랭킹에서는 박인비 10.30점, 페테르센 9.54점을 기록했다. 2월17일자 랭킹에서는 박인비 9.89점, 페테르센 9.53점으로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이벤트 경기지만 페테르센이 박인비를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할 경우 본 대회에서 다시 한번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넘볼 수 있다. 작년 이 대회에서는 페테르센이 우승, 박인비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우즈, 혼다클래식 기권...‘성적 부진 면피’ 꿈수?

4라운드 전만 9홀서만 5타 까먹자 포기 “허리 통증 때문”...우승자는 러셀 헨리



리 통증. 그러나 일부에서 성적 부진을 면하려는 꿈수였다는 관측도 있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미 PGA 투어 혼다클래식 최종라운드를 마치지 못하고 기권했다. 우즈는 3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내셔널 챔피언스코스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13번홀 경기를 끝내고 허리 통증을 이유로 코스를 빠져나왔다. 우즈가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기권한 건 이번이 7번째다. 기권 이유는 허리 통증. 그러나 일부에서 성적 부진을 면하려는 꿈수였다는 관측도 있다.

우즈는 3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몰아치며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최종라운드 시작과 함께 성적이 좋지 못했다. 전반 9홀에서만 5타를 까먹었다. 이후 13번홀까지 모두 파를 기록했지만 이미 우승권에서 떨어져 하위권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우즈의 대변인 글렌 그리스틴은 “우즈가 4라운드 경기 시작 전부터 허리 통증을 느꼈다”라고 짧게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우즈는 올해 출전한 PGA 투어 2개 대회에서 모두 최종라운드까지 경기를 펼치지 못하는 불명예를 남겼다. 첫 출전한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서는 3라운드 뒤 컷 탈락했고, 두 번째 대회인 혼다클래식에서는 기권으로 최종라운드를 끝내지 못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기에서는 러셀 헨리(미국)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라이언 파머(미국), 러셀 녹스(스코틀랜드)와 연장 끝에 우승했다. 헨리는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을 확정지었다. 우승상금은 108만 달러(약 11억5000만원).

주영로 기자

e스포츠가 된다!

| 스타2 WCS GSL 시즌1 코드S 16강



김민철 조성주 백동준

김민철 vs 조성주 vs 백동준 역대 최강 ‘죽음의 조’ 눈길

6일 WCS코리아 우승자들 모인 B조 경기 ‘치열’

‘스타크래프트2:군단의 심장’을 종목으로 한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WCS) GSL’ 시즌1 코드S(본선)가 5일부터 16강에 돌입한다. 지난주 백동준(마우스스포츠)과 신노열(삼성 갤럭시 칸) 등이 합류하면서 총16명의 선수가 모두 가려졌다. 예상된 강자들은 모두 합류했다. 백동준과 김민철(SK텔레콤T1) 등 시드권자 7명을 비롯해, 부활을 예고한 ‘GSL’ 챔피언 출신 신노열과 이승현(스타테일) 등도 우승을 노리고 있어 선블리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종족별로 보면 16강 진출자 중 9명이 프로토스, 그 외 저그는 5명, 테란은 2명이 16강에 진출했다. 32강에 비해 선 그나마 밸런스를 조금 더 갖춘 모습이지만 프로토스의 강세가 예상된다.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테란 선수들이 종족의 부활을 이끌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

16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SK텔레콤T1 선수가 무려 5명이나 진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16강 조추첨 결과 프로토스로만 구성된 C조에 김도우와 원이삭, 정윤종(이상 SK텔레콤T1)이 포함돼 팀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6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진은 6일 열리는 B조 경기다. 지난해 ‘WCS코리아’ 우승자들인 김민철과 조성주(진에어 그린윙스), 백동준이 같은조에 포함된 것. 지난해 돌풍 이후 백동준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김민철과 조성주의 경우 프로리그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어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여기에 프로리그에서 최근 가장 핫한 선수인 주성욱(KT블스터)도 무시할 수 없는 카드여서 ‘죽음의 조’로 불린다.

5일 열리는 A조 역시 ‘GSL’ 챔피언 출신 신노열과 이승현, 그리고 지난해 ‘블리즈컨 2013’에서 우승하며 단숨에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한 김유진(진에어 그린윙스)이 포함돼 있어 쉽사리 결과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다른 조에 비해 덜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는 7일 D조 경기 역시 최근 강세를 보여온 김준호(CJ엔투스)와 꾸준함을 보여준 어윤수(SK텔레콤T1)와 조성호(IM), 그리고 16강에 진출한 2명의 테란 중 하나인 정우용(CJ엔투스)이 포함돼 치열한 승부가 점쳐진다.

한편, 한국 지역 못지않게 치열한 32강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북미 지역에선 현지와 한국에서 두터운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이계동이 최지성과 대만선수에게 연거푸 패하면서 충격의 32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밤의 활기를 불어넣는 야관문(夜關門)!

‘야관문진액100’ 국내최초 출시

국내산 100% 야관문 어린잎만으로 만든 ‘야관문진액’이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남성들의 어깨를 펴게 해줄 수 있는 그것, 많은 남성들이 바라는 것, 바로 ‘야관문진액100’이다.

야관문을 가지는 자가 밤을 지배한다!

야관문, 밤에 빛장을 열어준다? 이것을 먹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자는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남자를 기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야관문(夜關門)은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등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인 생리활성물질로는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피니롤, 각종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져 부부가 함께 드시면 건강과 부부사이,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력왕’으로 불리기도 하며, 야관문을 먹은 여자들은 ‘천리광’, 밤낮 주아로 문을 연다고 하여 ‘백관문’, 남녀 모두에게 좋다고 하여 ‘울양초’,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좋다는 ‘노우근’ 등 야관문의 기능 만큼이나 불리는 이름도 많습니다.

50대에 늦동이를 봤다는 강모씨 현대들어 말 못할 고민을 가진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야관문’ 자량이 대단한 강모씨, 50대 초반에 늦동이를 보게 되는데 ‘야관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들의 어깨를 펴게 해 줄 수 있는 그것, 많은 남성들이 바라는 것, 바로 ‘야관문’입니다.

100% 국산으로 만든 ‘야관문 진액100’ 야관문 진액100° 제품은 야관문에 높은 압력을 가해 야관문의 식물체조직을 완전 극손상시켜 야관문의 유용성분들이 충분히 용출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남녀 누구나 거부감 없이 야관문의 힘을 느낄 수 있으며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1~2팩씩으로 밤의 활기를 불어넣는 야관문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가장 힘이 좋고 하여 대력왕으로도 불려 야관문은 원료를 중 힘이 가장 좋다고 하여

이것을 먹은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여자는 밤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남자를 기다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야관문(夜關門)

옛날엔 야관문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야관문을 아는 사람들은 숨겨두고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관문이 얼마나 좋았기에 숨겨두고 먹었을까요?

야관문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야관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탄닌 성분이 산화질소를 생성, 체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는것

www.buy1club.com

MBC 생방송 오늘아침, MBC 라디오스타, JTBC 뉴스맨, MBN 천기누설 등 여러곳에 방송되어 화제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중년의 배우가 야관문으로 부부사이가 원만해지고 몸이 고등학생으로 돌아 간다고 말해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야관문(夜關門)’이다.

‘야관문 진액 100’ 출시



1박스(100ml×30팩) -45,000원→ 38,000원 (택배비 별도)
2박스(100ml×60팩) -90,000원→ 76,000원

검색창에 바이원클럽 을 검색하세요
www.buy1club.com 문의 1544-0247